

#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Caregiving Behaviors and Emotional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명자  
석사 손서희

Major in Family & Resource Management, College of Human Ec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Kim, Myung-Cha*

*Master : Son Seohee*

## ◁ 목 차 ▷

- |               |              |
|---------------|--------------|
| I. 연구목적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level of caregiving behaviors of adult children and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giving behaviors of adult children.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620 adults, from 30 to 59 years old,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t least one living parent.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WIN including 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aregiving behaviors of adult children varied with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birth ranking and job for the children-related variables, and age of mother, income level and type of living for the parents-related variables. Second, the level of caregiving behaviors of adult children varied with the degree of emotional solidarity between the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ird, the caregiv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s gend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ifferentiating the motives for caregiv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부양행동(caregiving behaviors), 정서적 결속도(emotional solidarity), 성인자녀(adult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Son Seohee, Major in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ochangwon-gil 52,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457 Fax: 82-2-2077-7327 E-mail: seohee1022@sookmyung.ac.kr

## I. 연구목적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 여성의 취업 증가,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0%로 45.9%의 노령화 지수(Index of Aging)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7%, 2020년에는 15.1%, 2030년에는 23.1%로 급속한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5).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는 달리 노인부양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인부양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젊은이들이 보다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함에 따라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효를 바탕으로 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가족중심의 노인부양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적 부양체계의 미비는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하므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혼자녀의 참여의 중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에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부양에 따른 부담감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효를 바탕으로 한 노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혼자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부양행동은 늘리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강화시키는 것은 부양자 및 피부양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부양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장남에서 모든 자녀의 참여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혼아들 및 딸이 본인의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양행동의 수준은 어떠하며, 아들과 딸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의 아들 및 딸이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행동을 살펴보고,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봄으로써 기혼자녀들의 부양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혼자녀의 부양행동

부양이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부양을 정서적 부양, 서비스적 부양, 경제적 부양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태현, 1981; 신수진, 1993; 서소영, 1998). 김명자 외(1999)는 노인과 부양자 양측 모두 전 생애를 통하여 상호 작용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서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자원을 노인에게 제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부양이라 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도움관계는 생애를 통해 계속되는데, 인생 초기의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며 나이가 들어서도 다방면으로 자녀를 도와준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움의 패턴에 변화가 생겨 부모가 신체적 혹은 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자원을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 1) 부양행동의 유형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은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정서적 부양,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세탁, 심부름, 간병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적 부양, 그리고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가족 내에서의 위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경험은 노인들을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 위축되거나 고립시키기 쉬우며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에게 외로움, 고독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한다. 이 때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정신적 측면의 부양을 제공하는 것을 정서적 부양이라 한다(김명자 외, 1999; 김송애, 1991).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직접적인 부양을 제공받는 것보다 자

너로부터 애정과 사려 깊은 관심을 받기를 바라며, 솔직하고 개방된 대화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있다(조병은, 1990; 홍달아기, 1998).

서비스적 부양은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신체적 부축, 세탁, 질병시의 시중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서비스 부양의 중요성은 증대된다(김명자 외, 1999).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성인자녀의 분가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으며, 노인을 부양할 자녀수가 감소(박성수, 1999)하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적 부양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있지만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이라 할 수 있다(김태현, 1981). 특히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현상으로 의료비용의 지출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 이므로 노인들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장인협, 최성재, 1996). 즉,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생계유지 및 기본적인 욕구 충족, 나아가 자아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성인자녀 부양자에게 무거운 짐이 되며 이들 관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명자, 1999). 그러므로 경제적 부양은 성인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2)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1) 자녀관련 변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출생순위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양행동에 대해서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나, 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의무감을 크게 지각한다(김순옥, 송현애, 1988; 임춘희, 정옥분, 1988; 최정혜,

1992). 서병숙, 장선주(1990)는 부모는 아들과 규범적 관계를 그리고 딸과는 정서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적 부양행동의 경우 주로 문화적 정의에 따른 성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는 딸이 우세하고, 의사결정, 재정적 도움과 같은 보다 물질적 역할은 아들이 맡는다(김명자 외, 1996; Horowitz, 1985)고 하였다. 한편 서구의 경우 딸이 병약한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아들보다 높다(Kaufman & Uhlenberg, 1998; Peters et al., 1999)고 하였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다고 한 반면, 경제적 부양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하였다(강유진, 1997; 전길량, 1993).

부양자의 소득은 부양행동 중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민무숙, 1995; 이신숙, 서병숙, 1993; 이윤정, 1994), 또한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강유진, 1997).

출생순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직계가족이라는 가족제도 아래 가문계승과 더불어 부모부양의 모든 측면을 장자들이 책임져 왔고, 지금도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장자 중심으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서소영, 1998). 그러나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와 함께 젊은이들의 부양의식이 변화되면서 장남에 의한 부양이 당연시되기보다는 부모를 모실 능력이 있거나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김혜연, 김성희, 1999).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노부모에게 행하는 부양서비스 중에서 접촉과 도구적 부양의 경우에는 장남과 그 외의 다른 형제들과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는 장남이 더욱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고 하였고(강유진, 1997; 임월, 1997), 자녀로서의 의무감 역시 장남이 높다(김순옥, 송현

애, 1988)고 하였다. 한편 딸의 경우 첫째는 예로부터 '살림밑천'이나 '고명딸'로 불리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손아래 동생들에 대한 책임도 남달라 가정관리의 책임을 맡곤 하였으므로 첫째의 위치는 타 동생들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신숙, 서병숙, 1994). 따라서 출생순위에 따른 부양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2) 부모관련 변인

부모의 연령, 부모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형태는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볼 수 있다.

부모의 연령은 건강상태 및 경제력과 관련지어 진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연히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측면의 의존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도움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Spitze & Logan, 1990; Thompson & Walker, 1984).

노부모의 경제상태는 부모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경제적 자원이 되므로, 부모의 수입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부양행동은 증가하게 된다(강유진, 1997; 김송애, 1991; 서소영, 1998; 이윤정, 1994).

부모의 건강상태는 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가 노화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성미애, 1991; 이윤정, 1994).

동거여부에 따른 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연구(김송애, 1991; 조병은, 신화용, 1992)에서는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은 별거하는 자녀보다 더 많은 부양행동 및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거주근접성은 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보다 간편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보다 잦은 방문과 전화 접촉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용자원이 더욱 많아지게 한다(김유경, 2000). 한편 Leigh(1982)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일생을 통해 변함없이 존재하며 지리적인 원거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근

본적인 유대관계는 지리적인 원거리에 상관없이 지속되며 애정적인 친밀감이 상호작용의 양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과 경제적 원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적 부양과 같은 매일 매일의 직접적 부양은 자녀들이 노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유진(1997)은 경제적인 부양행동의 경우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 더 증가한다고 하였다.

## 2.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

부모-자녀관계는 전생애 동안 서로간의 독립성과 의존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양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지원관계로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동시에 어떤 사회관계로도 대체될 수 없는 심리적 유대감을 제공한다(김명자 외, 1999; 박희성, 1993). 더욱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부모와 자녀의 생애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공유되는 근래에는 두 세대가 생존해 있는 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Kaufman & Uhlenberg, 1998),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자녀관계는 서로에게 안정감과 신뢰감, 애정을 심어주는 만큼 기혼자녀에게 있어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는 애착(attachment), 결속도(solidarity), 친밀감(intimacy 혹은 emotional closeness), 애정(affection) 등이 언급되어진다.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표현할 때, 유아, 아동기의 경우 애착과 같은 개념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으나, 성인기의 경우 발달 과정을 이용하여 친밀감으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의 경우 결속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정서적 유대관계는 부양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어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현재 자녀의 부양 행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부양행동과도 연관된다(조윤주, 2002; Thompson & Walker, 1984). 즉, 정서적 결속과 같은 세대간의 관계의 질은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행동의 계속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개념이므로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결속도와 같은 관계의 질은 자녀의 부양행동을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김효정, 1995; 신호식, 1993; 조병은, 1990; 최정혜, 1992)을 통해서 정서적 결속도가 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hatters(1985)는 가족생활의 정서적 차원으로서 가족의 응집성은 부양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접촉과 같은 가족간의 연합적 차원보다는 애정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양자와의 친밀감과 같은 관계의 질이 부양자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길량(1993)은 모녀간의 친밀감 지각과 같은 정서적 결속도는 딸의 부양동기와 관련지어 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전길량, 1993; Leigh, 1982; Thompson & Walker, 1984)를 통해서 노부모-성인자녀간의 정서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현재 주는 도움이 많고 미래의 부양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갈등이 많을수록 도움을 제공한 후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와 친밀한 정서적 결속도를 유지하여 온 자녀는 자발적으로 부모 부양에 참여하게 되고, 부양부담감을 낮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단순히 의무감에 의해서 만이 아닌 애정적 유대가 기초된 결합에 의해서 형성될 때 갈등이 완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녀의 부양행동이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결속도는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일 것이다.

### III. 연구문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혼 아들의 부양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 정서적 결속도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 딸의 부양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 정서적 결속도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도구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기혼자녀들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관련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을 선정하였고,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연령,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등을 선정하였다.

#### 2) 정서적 결속도

정서적 결속도는 부모-성인자녀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것으로 따뜻한 감정, 가까움의 정도 등으로 김효정(1995), 최정혜(1992)의 설문을 토대로 정서적 결속도 측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총 13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선정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을 정서적 결속도로 명명하였다. 이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부양행동

선행연구(강준희, 2000; 김송애, 1991; 서소영, 1998)의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부양행동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총 20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선정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한 요인은 정서적 부양행동(7문항), 서비스적 부양행동(7문항), 경제적 부양행동

(6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변인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인별 척도의 문항수와 신뢰도

변 인		문항수	신뢰도계수
정서적 결속도		13	.93
부양행동	정서적 부양행동	7	.84
	서비스적 부양행동	7	.86
	경제적 부양행동	6	.84
	전 체	20	.90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부모님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신 만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는 2003년 11월 5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기혼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4년 1월 5일부터 3월 10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7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재가 불충분한 53부를 제외한 총 620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 <표 3>에 나타나있으며,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기혼성인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부모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620)

변 인	구 분	빈 도	%
성별	남	268	43.2
	여	352	56.8
연령	30세 이상~40세 미만	319	51.5
	40세 이상~50세 미만	212	34.2
	50세 이상~60세 미만	89	14.4
출생 순위	장남/녀 및 외동아들/딸	298	48.1
	차남/녀 이하	322	51.9
교육 수준	고졸 이하	95	15.3
	대졸 이하	413	66.6
	대학원졸 이상	112	18.1
직업	전업주부·무직	186	30.0
	판매·영업·기술직	52	8.4
	자영업·자유직	94	15.2
	사무직	174	28.1
	경영관리·전문직	114	18.3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44	7.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9	24.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41	24.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4	14.5
	500만원 이상	171	29.5

<표 3>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620)

변 인	구 분	빈 도	%	
생존 여부	두 분 모두 생존	362	58.4	
	아버지만 생존	34	5.5	
	어머니만 생존	224	36.1	
연령	아버지	65세 미만	137	34.7
		65세 이상~70세 미만	89	22.5
		70세 이상~75세 미만	86	21.8
		75세 이상	83	21.0
	어머니	65세 미만	227	38.7
		65세 이상~70세 미만	115	19.6
		70세 이상~75세 미만	110	18.7
		75세 이상	135	23.0
건강 상태	아버지	건강하신 편	275	69.6
		건강하지 않으신 편	120	30.4
어머니	건강하신 편	304	51.5	
	건강하지 않으신 편	286	48.5	
소득 수준	수입이 전혀 없음	150	24.2	
	수입은 있으나 상당히 부족	60	9.7	
	수입은 있으나 다소 부족	196	31.6	
	수입 충분	214	34.5	
거주 형태	노인 단독가구	341	55.0	
	다른 자녀와 동거	191	30.8	
	설문 작성 본인과 동거	58	9.4	
	병원 및 시설	30	4.8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표 4>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구 분	전체 (N=620)		아들 (N=268)		딸 (N=352)		t
	M	SD	M	SD	M	SD	
정서적 결속도	3.47	.69	3.50	.64	3.46	.72	.74
정서적 부양행동	3.42	.70	3.43	.66	3.41	.73	.41
서비스적 부양행동	2.84	.80	2.87	.79	2.82	.81	.85
경제적 부양행동	2.94	.91	3.06	.86	2.93	.93	1.82
전체 부양행동	3.09	.65	3.12	.63	3.06	.67	1.28

2. 배경변인에 따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자녀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행동은 <표 5>와 같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전체 부양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하위 영역 중 경제적

<표 5> 기혼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행동

(N=62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변인		부양행동			정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			경제적 부양행동			전체 부양행동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성별	남	3.43	.66		2.87	.79		3.06	.86		3.12	.63				
	여	3.41	.73		2.82	.81		2.93	.93		3.06	.67				
t		.41			.85			1.82			.45					
연령	30세 이상~40세 미만	3.43	.68		2.84	.77		2.79	.86	A	3.03	.61				
	40세 이상~50세 미만	3.44	.71		2.88	.85		3.16	.89	B	3.16	.67				
	50세 이상~60세 미만	3.33	.77		2.74	.81		3.25	.95	B	3.10	.72				
F		.89			.93			15.31***			2.54					
출생 순위	장남/녀 및 외동아들/딸	3.49	.69		2.92	.76		2.99	.93		3.14	.63				
	차남/녀 이하	3.35	.71		2.77	.83		2.98	.88		3.04	.66				
t		2.42*			2.42*			.16			2.0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37	.76		2.90	.81		3.02	.89		3.10	.68				
	대졸 이하	3.40	.70		2.81	.82		2.97	.88		3.07	.65				
	대학원 이상	3.51	.65		2.91	.74		3.00	1.02		3.15	.62				
F		1.38			1.02			.14			.76					
직업	전업주부·무직	3.34	.73	A	2.73	.81	A	2.77	.95	A	2.95	.66	A			
	판매·영업·기술직	3.48	.83	AB	3.08	.81	B	3.11	.83	BC	3.23	.73	BC			
	자영업·자유직	3.35	.66	A	2.76	.81	A	3.03	.91	ABC	3.05	.66	AB			
	사무직	3.40	.64	AB	2.88	.74	AB	2.97	.81	AB	3.09	.57	ABC			
	경영관리·전문직	3.59	.70	B	2.93	.82	AB	3.26	.93	B	3.26	.66	C			
F		2.66*			2.88*			5.75***			4.87**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3.37	.79		2.80	.80		2.58	.84	A	2.93	.64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39	.71		2.88	.82		2.76	.80	AB	3.02	.64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39	.70		2.82	.80		2.95	.83	B	3.06	.64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37	.70		2.72	.75		2.98	1.01	B	3.03	.65				
	500만원 이상	3.48	.68		2.86	.80		3.24	.95	C	3.19	.65				
F		.56			.66			8.19***			2.34					

\*P<.05 \*\*P<.01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양행동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행동이 많아져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의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경제적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은 부모의 연령 또한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대체로 감소하게 되므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제적 부양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출생순위에 따른 전체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녀 및 외동아들/딸 집단이 차남/녀 집단보다 더 많은 부양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서적 부양행동과 서비스적 부양행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이윤정,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장남/녀의 부양행동이 차남/녀 보다 많은 것으로 부양에 대한 장남/녀의 의무감이나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하지만, 경제적 부양행동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직업에 따른 부양행동은 직업군에 따라 부양행동의 차이를 보였는데, 경영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은 서비스적 부양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정서적 부양행동 및 경제적 부양행동에서 다른 직업군들 보다 높은 부양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소득과 직업적 지위를 가지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양행동은 경제적 부양행동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제적 부양행동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집단,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행동은 <표 6>과 같다.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른 전체 부양행동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부양행동과 경제적 부양행동 두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부양행동의 경우 아버지 한 분만 생존해 계신 경우보다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와 어머니 한 분만 생존해 계신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행동은 어머니 한 분만 생존해 계신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는 경제활동을 담당했던 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도가 낮으므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만 생존해 계신 경우 부양행동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이윤정, 1994)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양행동은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경제적 부양행동의 측면에서만 나타나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행동이 많아 졌다. 반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양행동은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경제적 부양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정적 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65세 이상~70세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65세 미만 집단의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순옥, 송현애, 1988; 전길량, 1993) 결과와 같은 것이다. 이들은 서로간의 감정교류가 용이하고, 쇼핑을 함께하는 등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양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시아버지의 건강상태에 따라



<표 6>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행동

(N=620)

부양행동		정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			경제적 부양행동			전체 부양행동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생존 여부	두 분 모두 생존	3.47	.67	B	2.83	.78		2.85	.88	A	3.06	.61		
	아버지만 생존	3.34	.74	A	2.69	.83		3.06	.98	AB	2.96	.74		
	어머니만 생존	3.37	.70	B	2.89	.84		3.19	.90	B	3.15	.69		
F		4.34*			1.03			10.01***			1.93			
연령	부	65세 미만	3.45	.68		2.89	.74		2.73	.92	A	3.04	.62	
		65세 이상~70세 미만	3.44	.71		2.83	.85		2.84	.76	AB	3.05	.63	
		70세 이상~75세 미만	3.52	.62		2.77	.76		2.90	.89	AB	3.07	.57	
		75세 이상	3.37	.71		2.77	.81		3.10	.94	B	3.08	.57	
	F		.74			.59			3.09*			.11		
	모	65세 미만	3.48	.70	B	2.93	.78	B	2.80	.85	A	3.09	.62	B
		65세 이상~70세 미만	3.30	.71	A	2.60	.79	A	2.85	.89	A	2.92	.64	A
		70세 이상~75세 미만	3.53	.63	B	2.95	.74	B	3.08	.91	B	3.19	.61	B
75세 이상		3.38	.72	AB	2.82	.85	B	3.29	.89	B	3.15	.69	B	
F		2.64*			5.18**			9.98***			4.01**			
건강 상태	부	건강하신 편	3.46	.67		2.86	.77		2.85	.88		3.37	.62	
		건강하지 않으신 편	3.42	.69		2.73	.80		2.92	.93		3.03	.63	
	t		.53			1.61			-.75			.58		
	모	건강하신 편	3.35	.68		2.85	.79		2.94	.90		3.09	.63	
		건강하지 않으신 편	3.42	.71		2.84	.81		3.01	.90		3.10	.66	
	t		.52			.17			-1.02			-.16		
소득 수준	수입이 전혀 없음	3.32	.71		2.88	.81		3.38	.90	C	3.19	.69	B	
	상당히 부족	3.32	.76		2.63	.83		3.15	.91	B	3.03	.67	AB	
	다소 부족	3.45	.71		2.93	.78		3.07	.80	B	3.15	.64	B	
	수입 충분	3.48	.67		2.80	.80		2.58	.85	A	2.97	.61	A	
	F		1.95			2.42			28.70**			4.18**		
거주 형태	노인 단독가구	3.42	.68	B	2.77	.77	A	2.92	.89	A	3.04	.62	A	
	다른 자녀와 동거	3.40	.73	B	2.80	.79	A	2.96	.84	A	3.06	.64	A	
	실문 본인과 동거	3.61	.65	B	3.52	.69	B	3.55	1.00	B	3.56	.61	B	
	병원 및 시설	3.16	.80	A	2.64	.88	A	2.76	.94	A	2.86	.72	A	
	F		2.84*			16.81***			9.09***			12.85***		

\*P<.05 \*\*P<.01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양행동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서소영, 1998; 이윤정, 199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는 성인기혼 자녀인 아들·딸이 자신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아들 및 며느리를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

우 노부모에 대한 주부양자가 아들과 며느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부모의 건강이 나쁜 경우에 주로 요구되는 서비스적 부양행동의 대부분을 며느리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며느리가 제공해야 할 부양행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반해, 부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아들과 딸에게 요구되는 부양행동은 크지 않은 것으

로 유추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부양행동의 차이는 경제적 부양행동의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수입이 충분한 집단보다 수입이 부족한 집단과 수입이 전혀 없는 집단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송애, 1991; 이윤정, 1994; 서소영, 1998)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부모의 수입이 적을수록 자녀의 경제적 부양행동은 많아지는 것이다.

거주 형태에 따른 부양행동은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서비스적 부양행동 및 경제적 부양행동은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행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강준희, 2000; 김송애, 1991; 이윤정, 1994)와 같은 결과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비하여 많은 서비스적, 경제적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부모와 자주 접촉하면서 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부양행동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별거하는 자녀보다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높으며,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동거 여부에 따른 서비스적, 경제적 부양행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유진(1997)은 자녀와 별거할 때, 경제적 부양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정서적 부양행동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 형태가 병원 및 시설인 경우에 가장 낮은 정서적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은 <표 7>과 같다.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양행동의 경우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은 정서적 결속도가 보통, 낮은 집단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도는 자녀의 부양행동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좋을수록 부양행동을 많이 제공한다는 선행연구(강준희, 2000; Leigh, 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양행동의 하위 영역 중에서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차이는 정서적 부양행동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은 평균 4.1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정서적 결속도가 낮은 집단은 평균 2.77점으로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부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결속도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욱 많은 정서적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 유대관계라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민무숙, 1995; 전길량, 1993; 조병은, 1988), 원만한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노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표 7>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기혼자녀의 부양행동

부양행동			정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			경제적 부양행동			전체 부양행동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정서적 결속도	낮	106	2.77	.76	A	2.44	.77	A	2.72	.88	A	2.64	.66	A
	보통	433	3.44	.57	B	2.86	.76	B	3.01	.89	B	3.11	.60	B
	높음	81	4.13	.46	C	3.31	.82	C	3.19	.95	B	3.56	.53	C
F			118.36***			29.57***			6.91**			54.52***		

\*\*P<.01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정서적 결속도 수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낮음: M-SD 미만    보통: M-SD 이상 ~ M+SD 미만    높음: M+SD 이상

양 세대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서적 결속도는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낮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Umberson, 1992). 따라서 정서적 결속도는 부양상황에 있어서 노부모 및 성인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적 부양행동의 경우에서도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별거의 가족형태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의 서비스 부양행동은 평균 3.31점으로 보통 이상의 서비스적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성인 자녀가 부모와 별거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빈번한 접촉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양행동 영역에서는 정서적 결속도가 높음, 보통인 집단이 정서적 결속도가 낮은 집단보다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 3.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정서적 결속도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는 배경변인 중 자녀관련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부모관련 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아들의 부양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서적 결속도의 영향력은 다음 〈표 8〉과 같다.

아들의 부양행동의 경우 1단계의 자녀관련 변인, 2단계의 부모관련 변인에 따른 설명력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적 결속도( $\beta = .53$ )가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표 8〉 아들의 부양행동에 대한 재 변인군의 상대적 설명력 (N=268)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자녀 관련 변인	연 령	-.01	.08	-.01	-.10	.00	.02	
	출생순위 <sup>a</sup>	.08	.06	.05	.04	.01	.01	
	교육수준	-.01	-.03	.01	.02	-.01	-.02	
	직업 <sup>b</sup>	전업주부·무직	-.64	-.13	-.63	-.13	-.24	-.05
		판매·영업·기술직	-.01	-.00	-.02	.01	.10	.06
자영업·자유직		-.13	-.09	-.14	-.10	-.12	-.08	
사무직		-.24	-.19*	-.18	-.15	-.10	-.08	
소득수준	.00	.01	.00	.03	.00	.02		
부모 관련 변인	생존 여부 <sup>c</sup>	두 분 모두 생존			-.05	-.04	-.02	-.02
		아버지만 생존			-.09	-.03	-.06	-.02
	소득 수준 <sup>d</sup>	수입이 전혀 없음			.10	.08	.17	.12
		상당히 부족 다소 부족			.05	.03	.15	.07
거주 형태 <sup>e</sup>	노인단독가구			-.28	-.23	-.26	-.21	
	다른 자녀와 동거 설문 본인과 동거			-.32	-.24	-.41	-.23	
정서적 유대관계	정서적 결속도					.51	.53***	
F-value		1.24		1.68		7.71***		
R <sup>2</sup>		.04		.10		.36		
R <sup>2</sup> Change				.06*		.26***		

- a: 출생순위: 기준이 차남 이하, 비교가 장남 및 외동아들
- b: 직업: 기준이 경영관리·전문직, 비교가 전업주부·무직, 판매·영업·기술직, 자영업·자유직, 사무직
- c: 부모님 생존여부: 기준이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 비교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 아버지만 생존
- d: 소득 수준: 기준이 소득이 충분, 비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상당히 부족, 다소 부족한 경우
- e: 거주형태: 기준이 병원 및 시설거주, 비교는 노인단독가구, 다른 자녀와 동거, 설문본인과 동거

나타났으며 26%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36%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양행동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자발적인 부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3〉의 딸의 부양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서적 결속도의 영향력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딸의 부양행동에 대한 제 변인군의 상대적 설명력 (N=352)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자녀 관련 변인	연 령	.00	.00	-.01	-.09	-.00	-.03	
	출생순위 <sup>a</sup>	.13	.10	.13	.09	.10	.08	
	교육수준	-.01	-.04	-.01	-.03	-.02	-.05	
	직업 <sup>b</sup>	전업주부·무직	-.32	-.24**	-.35	-.26***	-.27	-.20**
		판매·영업·기술직	-.08	-.03	-.11	-.04	-.13	-.05
		자영업·자유직	-.24	-.10	-.30	-.12	-.30	-.12*
사무직		-.34	-.02	-.17	-.09	-.11	-.06	
소득수준	.00	.23***	.00	.22***	.00	.20***		
부모 관련 변인	생존 여부 <sup>c</sup>	두 분 모두 생존			-.09	-.06	-.12	-.09
		아버지만 생존			-.25	-.08	-.03	-.01
	소득 수준 <sup>d</sup>	수입이 전혀 없음			.26	.16*	.26	.16**
		상당히 부족 다소 부족			.17	.08	.21	.10
거주 형태 <sup>e</sup>	노인단독가구			.46	.34*	.39	.29*	
	다른 자녀와 동거 설문 본인과 동거			.50	.35**	.44	.31**	
정서적 유대관계	정서적 결속도			.97	.32***	.88	.29***	
						.40	.45***	
F-value		4.31***		4.44***		10.43***		
R <sup>2</sup>		.10		.19		.37		
R <sup>2</sup> Change				.09***		.18***		

- a: 출생순위: 기준이 차녀 이하, 비교가 장녀 및 외동딸
- b: 직업: 기준이 경영관리·전문직, 비교가 전업주부·무직, 판매·영업·기술직, 자영업·자유직, 사무직
- c: 부모님 생존여부: 기준이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 비교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 아버지만 생존
- d: 소득 수준: 기준이 소득이 충분, 비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상당히 부족, 다소 부족한 경우
- e: 거주형태: 기준이 병원 및 시설거주, 비교는 노인단독가구, 다른 자녀와 동거, 설문본인과 동거

1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녀관련 변인 중 딸의 직업이 전업주부( $\beta=-.24$ )인 경우와 소득수준( $\beta=.23$ )이 부양행동의 영향변인으로 밝혀졌고, 설명력은 10%이었다. 즉 경영관리·전문직의 직업을 갖고 있는 딸이 전업주부의 딸보다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하였고, 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게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이 더욱 용이해짐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다음 2단계에서 부모관련 변인을 추가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beta=.16$ ), 다소 부족한 경우( $\beta=.18$ ), 거주형태가 노인단독가구( $\beta=.34$ ), 다른 자녀와 동거( $\beta=.35$ ), 설문 본인과 동거( $\beta=.32$ ) 등이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이 추가되면서 9%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총 19%의 설명력을 보였다. 딸은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다소 부족한 경우에 더욱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병원 및 시설에 거주할 경우보다 노인단독가구, 다른 자녀와 동거, 설문 본인과 동거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부양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결속도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적 결속도( $\beta=.45$ )가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8%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37%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것은 딸과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아들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아들과 딸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들과 딸은 서로 다른 동기로 인하여 부양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딸의 경우는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부모의 소득 수준, 거주형태 등과 같은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딸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아들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소들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아들의 부양행동은 무조건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딸의 부양행동은 본인의 생활 여건이 허락하거나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부양행동에 대한 정서적 결속도는 아들, 딸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녀들의 부모 부양행동은 5점 기준으

로 평균 3.53점인 보통 이상의 부양행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정서적 부양행동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관련 변인에서 출생순위, 직업이 자녀의 부양행동의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관련 변인에서 어머니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가 자녀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부양행동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아들과 딸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관계없이 부모부양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딸의 경우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부모의 소득 및 거주형태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따라 제공하는 부양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기혼자녀들은 부양행동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부양행동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편에 맞는 효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이라는 것이 선행연구(민무숙, 1995; 전길량, 1993)에 의해 지지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정서적 부양행동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부양의 모습은 부모-자녀 모두에게 적합한 부양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서적 부양행동이 강조되는 부양 형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 집중되어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구적 부양행동을 사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서적 결속도가 높은 집단이 보통 집단 및 낮은 집단보다 많은 부양행동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기 자녀와 그들의 부모간의 관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성인기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은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셋째, 노인부양의 자발적인 성격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접 낳아주신 부모보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 제공은 노인부양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김미경, 2000). 그러나 직계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왔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친밀감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부모가 자신들의 생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보다 잘 적응할 것이다. 따라서 공적부양체계의 미비, 부양의식의 약화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부양현실을 감안할 때, 긴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혼아들과 딸의 부양에의 직접적 참여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들과 딸이 제공하는 전체 부양행동은 차이가 없었으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은 본인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계없이 부양행동에 참여하나, 딸은 본인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는 부모부양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가치관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자녀수의 감소와 아들과 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부양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가족 내 다른 역할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좋은 노부모-성인자녀관계 형성과 발생 가능한 위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해 보다 많은 설명을 가능하게 할 노부모-자녀 동거가정 및 와병

노인 가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아 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유진(1997). 비동거 성인자녀의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준희(2000). 기능취약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자의 부양행동과 부양스트레스 및 만족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양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김명자, 이선재, 김현숙, 승정자, 이재연, 양숙희, 박전자, 계선자, 이정우, 이소희(1999). 현대 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노인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 65-84.
-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송현애(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83-101.
- 김유경(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김효정(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 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74-90.
- 박성수(1999). 노인부양형태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성(1993). 기혼자녀의 친모에 대한 애착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장선주(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 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 서소영(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애(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 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 부담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1993). 성인 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 서병숙(1993). 부양자 스트레스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1), 39-54.
- \_\_\_\_\_ (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 이윤정(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정도과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 월(1997).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춘희, 정옥분(1988).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유형 -세대간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1), 163-177.
- 장인협, 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길량(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5.
- \_\_\_\_\_, 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http://www.nso.go.kr>
- 홍달아기(1998).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5-127.
- Chatters, L. M., Taylor, R. J., & Jackson, J. S. (1985). Size and Composition of the Informal Helper Networks of Elderly Blacks. *Journal of Gerontology*, 40(5), 612-613.
- Horowitz, A. (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The Gerontologist*, 25(6), 612-617.
- Kaufman, G., & Uhlenberg, P. (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924-938.
- Leigh, G. K. (1982). Kinship Interaction over the Family Life Sp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1), 197-208.
- Peters, N. D., Moss, M. S., & Pruchno, R. A. (1999). Children-in-Law in Caregiving Families. *The Gerontologist*, 39(1), 66-75.
- Spitz, G., & Logan, J. (1990). More Evidence on Women(and Men) in the Middle. *Research of Aging*, 12, 182-198.
- Thompson, L., & Walker, A. J. (1984).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313-322.
-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664-674.

(2005년 2월 25일 접수, 2005년 5월 9일 채택)